

‘호남 1호’ 나주에 장애인e스포츠시설 문 열었다

반다비체육관서 첫 e스포츠 교육

경기장·탁구실·체력단련실 등 갖춰 나주시·시의회·연맹 등 협업 구축 아이들 ‘제2의 페이스 키보드’ 흡족 “장애·비장애 아동 협력 통해 성장”

“아잇,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 공이 내 마음대로 안 가요.”

지난 26일 찾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풍차를 돌리듯 게임기를 힘차게 흔드는 아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아이들. 이곳에서는 전국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공간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의 첫 e스포츠 수업이 한창이었다.

이날 수업은 나주연산포아동센터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을 맡은 나주시장애인e스포츠연맹은 △카트라이더 △리그오브레전드(LOL) △닌텐도 볼링 △닌텐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가르쳤다. 게임 특성상 화려한 드리프트 기술이나 어려운 전술 등이 요구되지만, 게임을 조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밝고 즐거워 보였다. 때로는 실수에 웃고, 승부욕을 불태우며 즐겁게 도전했다.

이모(11)군은 “닌텐도 게임을 여기서와



지난 26일 나주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합동 e스포츠교실’ 첫 교육에서 학생들이 닌텐도 볼링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 처음 해 봤다. (오락은) 휴대폰으로만 하는 게 전부였는데, 운동하듯 땀이 뻘뻘 난다”며 “같이 온 친구를 이기고 싶은데 잘 안된다. 이제 시설도 갖춰졌으니 열심히 연습해서 애들 중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지난 11일 문을 연 반다비 체육센터는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장애인 e스포츠 전용 공간을 갖춘 체육시설이다. 30억원

을 들여 노후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지상 2층, 연면적 3849㎡ 규모로 탈바꿈했다. 경기장·탁구실·체력단련실·e스포츠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구조와 장애인 맞춤형 게임 장비, 보조기기 등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시의회·장애인e스포츠연맹과 ‘3자 협업 체계’를 꾸려 장

애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다. 박소준 나주시의원은 “e스포츠는 장애인들에 가장 장벽이 없는 스포츠다. 이동부터 교육 과정까지 세심히 준비했다”며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지역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박동민 전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모델을 나주에서 만들 수 있어 뜻깊다”며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e스포츠 전문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수업은 단순한 게임 교육을 넘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이자 배움의 장’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으로 교실을 빠져나가던 박광일 군은 “매일 혼자 게임을 했는데, 함께할 사람들이 생기기 너무 좋다”며 “카트라이더가 너무 재밌었다. 가르쳐 준 대로 하니 실력도 올라간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싶다. 페이스 키보드 유망해지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은채 나주시장애인e스포츠연맹 회장은 “장애·비장애 그리고 단순한 놀이를 넘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며 “나주 장애인 e스포츠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힐링e스포츠’ 프로그램, 토요일에는 ‘신나는 e스포츠 주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e스포츠 선수 양성 과정과 ‘찾아가는 교실형 e스포츠’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여수 해상서 화물선 급유 중 병커유 유출 음주운전 추격 중계·사망사고 연루 유튜버 ‘기소’

해경 긴급방제 실시

전라남도 여수 해상에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2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께 여수시 오동도 동쪽 약 1.5km 정박지에서 1400톤급 외국적 일반화물선 A호가 200톤급 급유선 B호로부터 기름 수급 중 저유량병커B유가 해상에 유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함정 5척, 유관기관 2척, 민간방제선 1척 등 총 8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약 12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작제 등으로 신속한 잔류 기름 수거 작업을 벌여 해상에 유출된 검은색 및 갈색의 기름띠를 2시간여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

기름유출은 외국적 화물선 A호가 200톤급 한국 선적 급유선 B호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 화물선 A호의 밸브조작 실수로 기름이 에어 벤트(공기 순환 통로)로 넘쳐흘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계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공동협박 등 인과관계 성립 판단 구독자 11명도 함께 재판 넘겨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본보 2024년 9월 24일자 4면) 원인제공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공동감금) 혐의로 최모(42)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

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30대 중반 남성 A씨의 사망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광주·전남 유흥가 등지를 돌며, 음주운전 차량과 폭주족 추적 등 ‘사적 제재’ 콘텐츠를 제작해오던 최씨는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며 물었고,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최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고 A씨를 뒤쫓는 현장을 생중계 했다. 이를 피해 도주하던 A씨는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병

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최씨가 벌여온 추격전에는 그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도 합류했고, 이들 일당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에워싸는 방식 등으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A씨의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최씨의 혐의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추격전에 동조했던 최씨의 구독자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유철 기자

당직근무 중 술 마신 광주 동구 간부, ‘감봉 3개월’ 징계

게시판 통해 직원 고발...사실확인 규정 따라 광주시 인사위서 의결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사무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 소속 5급 공무원 A과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근무 중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이 직원에게 목격돼 구청 게시판을 통해 고발됐고, 이후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했고, 감봉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 윤준명 기자

담양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50대 중상

담양에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8일 담양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께 담양군 창평면 우천리의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타던 패러글라이딩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다 다쳐 출혈이 있

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광주시교육청, 적극행정 독려에도 제도 활용 매우 낮아”

교육단체 “실효성 있는 교육·홍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용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0~2025년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1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 소홀과, 같은 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등록 업무 부적정 건이 각각 기관주의 처분에서 ‘불문’으로 변경됐다. 두 사례 모두 공공의 이익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면책이 인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크게 줄었고, 2025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하고, 타 시·도의 사례처럼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을 신청하거나 면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승우 기자